천득염의 건축인문기행

황금빛 신비의 나라 미얀마

⑤ 지도자 수지와 수많은 과제

‘민주화의 상징’ 수지가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얀마의 버마족과 승려들이 이슬람교도인 로힝야 부족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위키디피아〉

미얀마의 아웅 산 수지 국가 고문. 최근 로힝야족 탄압 방조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버마 국부 아웅산 장군의 딸
‘민주주의민족동맹’ 조직
신군부 항쟁 민주화운동을 이끌어
노벨평화상 수상했지만
로힝야족 학살 국제사회 비판
세계최저 국민소득·종족간 갈등
군부와 관계 유지 등
민주화·산업화 어려운 과제로

미얀마가 영국과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얻고 다시 민주화를 이룬 것은 아웅 산이라는 민족지도자와 그의 딸 아웅 산 수지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의 몇 차례 선거에서 민주진영이 승리한 것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아웅 산이라는 신화에 기인한 것이다. 보죠케 아웅 산(Bogyoke Aung San, 1915년 2월 13일- 1947년 7월 19일)은 미얀마의 독립운동 혁명가이고 정치인이며 군인이다. 미얀마의 독립에 결정적 공헌을 했으나, 독립 달성 6개월 전에 암살되었다. 그는 현재까지도 미얀마 국민들로부터 변함없이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

아웅 산 수지(Aung San Suu Kyi)는 1945년 6월 19일 버마의 국부인 아웅 산 장군과 어머니 킨 지 여사의 고명딸로 태어나 15세 때인 1960년에 영국으로 유학했다. 수지의 아버지인 아웅 산 장군은 영국 식민지였던 버마를 독립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다. 그러나 1948년 미얀마 독립 2년 만에 정적 우소(U Saw)에 의해 암살당했고, 수지는 어머니를 따라 인도에서 살다가 영국으로 건너가 1964년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하여 철학과 정치학, 그리고 경제학을 공부했다. 그녀는 대학에서 영국인 마이클 에어리스 교수와 결혼해 평범하고 모범적인 전업주부로 생활했다. 남편은 이른 나이에 교수로 발탁되었고 달라이라마와도 친분이 있는 티벳 불교의 권위자였다. 그들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다.

아웅 산 수지에게 있어서 1988년은 운명의 해였다. 15살 때부터 시작하여 30여 년에 이르는 외국생활 동안 그녀는 학자로서, 또한 평범한 주부로서의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운명의 1988년,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영국에 머물던 수지는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미얀마로 돌아왔다. 군부는 돌아온 아웅산 수지가 국민 영웅인 아웅산 장군 같이 될까 두려워 그녀를 가택 연금 하였다. 2010년 가택 연금에서 완전히 해제되기까지 20년 동안 무려 15년을 집에 갇혀 지낸 아웅 산 수지는 외로운 투쟁 속에서 세계인들에게는 간디의 뒤를 잇는 비폭력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당시 버마는 오래 동안 계속된 군부독재와 이에 따른 경제파탄과 인권유린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당시 권자에는 아웅 산과 함께 독립 운동을 했고 독립 후 군부의 수뇌가 된 ‘네윈’이 자리하고 있었다. ‘네윈’은 1962년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네윈과 권력자들은 1960년대 대외적으로 쇄국 정책을 폈다. 동양적 가치관과 불교가 습합된 버마식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표방하였으며, 서방사회를 적대시하며 중립외교정책을 표방하였다. 시기적절하지 않은 정책들과 독재 권력의 부정부패는 경제 파탄을 가져왔다.

특히 1988년 8월 8일 수도 양곤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불교 승려와 시민들이 대거 참여한 8888항쟁이 일어났고 이 항쟁이 기폭제가 되어 더욱 확산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1988년 민중항쟁은 네윈의 독재체제를 붕괴시키고 다당제 총선까지 치루게 하였지만 민주주의 상징인 민선정부의 구성에는 실패하였다.

버마의 국민들은 건국의 아버지 아웅 산의 딸 수지가 자신들을 위해 행동해주기를 소망했다. 그저 ‘평범한 여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40대 중반의 수지는 안온했던 삶을 뒤로 한 채 가시밭길 같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군부는 쿠데타라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국민적 강한 지지를 얻고 있는 아웅 산 수지의 존재는 위협적이었다. 그러기에 자유롭게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거할 수도 없는 존재, 수지는 그렇게 버마 군사정권에 의해 정치활동 기간의 2/3를 감금당한 채 보내야 했다. 감금은 그녀의 정치 인생의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버마 국민들의 더 강한 지지와 세계적인 명성을 이끌어 내었다.

군부도 국민들의 민주화 의지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당 독재를 폐지하고 다당제 정치와 선거를 약속했다. 수지는 군부정권에 맞서 민주지사들과 함께 ‘민주민족동맹(NLD)’를 창설하고 사무총장직을 맡았다. 그녀는 전국을 돌며 새로운 버마에 대한 희망을 연설하고 군부 독재의 종식을 촉구하였다.

그런 가운데 노벨상 위원회는 1991년에 아웅산 수지의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미얀마 군사 정부가 출국을 허용하지 않는 바람에 영국에 있던 남편과 아들이 대신 상을 받았다. 그후 수지는 2012년 4월 1일에 치러진 미얀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85%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하원의원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이끄는 NLD은 45개 선거구 중 43곳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친군부계열의 ‘통합단결발전당(USDP)’이나 정부군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수지는 2012년에야 처음으로 해외 순방에 나선다.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노벨평화상 수상 21년 만에 감격의 수상 연설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 등을 차례로 만나며 세계적으로 미얀마의 민주화 지지를 얻어 나갔다. 2013년 1월 수지는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한국은 그녀와 같이 군부독재의 쓰라림을 겪은 나라여서 어느 나라보다 친근감을 가졌다. ‘광주인권상’을 받고 518묘지에 참배해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추념식수도 했다.

드디어 미얀마에 민주화의 봄이 왔다. 지난 2015년 11월 미얀마에서 총선이 실시됐다. 그 결과 수지가 이끄는 미얀마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상하원 전체의석의 절반 329석을 훨씬 넘어 348석을 차지해 단독집권이 가능해졌다. 미얀마는 헌법상 외국인 배우자, 자녀를 둔 자는 대통령 출마를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사실상 미얀마를 수렴청정 하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이고 대통령 위에 군림하고 존재하는 지도자이다.

그러나 통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수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있음이 나타나 보인다. 세계 최저의 국민소득, 종족간의 갈등, 군부와의 내부적 암투는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까지도 많은 권력을 쥐고 있는 군부와 관계를 잘 유지하여 민주화를 완성해야 한다. 국민들이 성급한 개혁을 요구하여 소란이 야기될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 유럽에선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로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그녀의 상을 박탈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네델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법정에 선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 겸 외교부장관의 표정은 단호했다. 국제사회가 ‘인종청소’로 규탄하고 있는 미얀마 군의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 장면은 국제사회에선 ‘아웅산 수지의 변절’의 상징처럼 됐다.

로힝야족 문제는 그녀에겐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특히 광주에서도 그녀에게 수여했던 ‘광주인권상’을 이미 취소했고, 명예시민증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90퍼센트 이상의 국민이 불교를 믿고 있는 불교국가 미얀마에서 이슬람교도인 ‘로힝야족’에 대해 인권을 무시한 냉엄한 행동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지가 이렇게 변한 이유는 무얼까? 일단 그가 2020년의 선거를 의식했다는 해석이 있다. 그녀의 행동이 국제사회에선 비난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선 국가의 참된 지도자의 책임있는 모습이라고 환영을 받고 있다. 이처럼 그녀가 국민의 대부분인 버마족 불교도와 다수 군부의 눈치를 보고 이들을 아우르며 국가를 보다 민주화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길이 결코 쉽고 순탄하지 않다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변혁이 혼란을 야기시키면 군부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 또한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산업화가 더욱 필요하다 하니 더욱 어려운 과제이다.

/전남대 연구석좌교수

지난 2013년 광주인권상을 수상하기 위해 광주 공항에 도착한 아웅 산 수지 여사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